

특별기고

광주특별시, 지금은 ‘나눔’ 보다 ‘한 방향’이 필요

송승중

전 광주광역시청 부이사관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특히 지금 광주·전남 앞에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역사적 기회가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는 문제가 아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가 움직이고 수많은 기업과 인재가 모여며, 광주·전남의 산업지형과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통합 광주특별시의 행정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대오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특별시 조직개편 시안이 기획 업무는 광주 청사에, 예산 업무는 무안 청사에, 인사 업무는 광주와 무안 청사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광주와 전남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행정권역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양 지역의 균형과 상생을 고려한 조직 배치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청사와 조직을 분산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는 정치적 고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 때의 약속만을 바라볼 때가 아니다.

통합을 이룬 지금, 통합시장이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광주·전남의 미래라는 더 큰 그림이어야 한다. 기획은 예산과 따로 떨어질 수 없다. 정책을 기획하면 반드시 예산이 따라오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를 집행할 조직과 사람이 필요하다. 인사 역시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기획·예산·인사는 행정의 세부적인 한 부분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행정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기능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배치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회의와 보고, 협의와 조정의 과정이 늘어나고 의사결정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적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의 투자 결정과 인허가, 산업용지, 전력과 용수, 교통망, 인재 양성, 연구개발, 주거와 교육 등 수많은 요소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행정이 기업보다 한발 앞서 움직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사이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조정하며 책임 있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행정의 핵심 기능을 이곳저곳으로 나누어 놓고 어떻게 속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민주적이고 균형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행정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이다. 지금 광주·전남이 처한 상황은 평상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국가전략 속에서

대규모 반도체 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광주특별시의 행정조직은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누어 갖는 행정’이 아니라 ‘집중하는 행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별 안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단일 대오’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보다 광주·전남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결단이다.

필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에게 감히 고언을 드리고 싶다.

이제는 정치인의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주특별시의 최고 행정관리자로 거듭나야 한다. 선거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통합 광주특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시간이다. 어느 청사에 어떤 조직을 배치할 것인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전남광주의 행정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적 기회를 현실로 만들 것인가이다. 80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프로젝트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 지금의 작은 행정적 불편이나 지역 간 안배는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한다.

역사는 거대한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한 지도자를 기억한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을 나누어 갖는 리더십이 아니라 큰 것을 함께 만들어내는 리더십이다.

민 시장이 하루빨리 선거의 공약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광주특별시 전체를 바라보는 행정가의 눈으로 돌아보기를 기대 한다.

기고

81주년 광복절, ‘광이 독립운동가’ 추모행사를 마치고

이병준

(사) 필문이전세선생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광복절의 한희가 온 누리에 물들 때, 역사의 깊은 숨결은 언제나 한 시대의 엄숙한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낸 이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낸다. 1919년 봄, 일제의 무단통치 칼날 아래 온 겨레가 타오르는 자존의 횃불을 들었을 때, 광주 본촌면 일곡 마을에서도 민족의 자주독립을 향한 장엄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광산이씨 일곡파 종중과 혈연으로 연결된 가문들이 일으켜 세운 항일 투쟁의 불길이었다.

2026년 제81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열린 ‘광산이씨 일곡파 독립운동가 추모식’은 단지 한 문중의 조상을 기리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매우 특별한 궤적을 남긴 지역 공동체의 술회한 정신을 재조명하는 역사적 이정표였다.

일곡 마을 독립운동이 지난 학술적·역사적 의의는 그 투쟁의 형태가 개인의 단발적 의기나 우발적 혈기에 그치지 않고, 부자(父子)와 형제, 나아가 장인과 처남을 아우르는 굳건한 ‘혈연·친족 연대’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 있다. 일제의 가혹한 보안법과 정보망 속에서 독립운동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3대가 멸족될 지도 모르는 연좌의 공포 앞에서도 광이 일곡의 선열들은 서로의 피와 신뢰를 밀거름 삼아 결사투쟁을 전개했다.

한 가문의 결의가 마을 전체로 확산되고, 나아가 광주 지역 3·1운동의 든든한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이윤호(1898~1931) 선생과 그의 일가가 서 있었다. 21세의 청년 이윤호는 광주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 시위를 주도하며 항일의 선봉에 섰고, 출옥 후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계 군자금 모금 등 국극 활동에 몸을 던지다 서른넷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했다. 그의 부친 이주산 선생은 아들과 함께 만세 운동의 맨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일곡교회를 설립하여 민족교육과 계몽운동의 기초를 놓은 지역의 정신적 지주였다. 동생 이창호 선생 역시 부친과 형의 뜻을 따라 독립 만세를 외치며 투쟁에 동참했다.

이 단단한 항일의 가계는 차가와 사돈가로 선명하게 확장된다. 이윤호 선생의 장인 류한선 선생은 국민회 사건 등으로 엄숙한 옥고를 치르며 일관된 투쟁을 이어갔고, 처남 류계문 선생은 매형과 사돈 가문과 뜻을 같이하여 만세 현장을 이끌었다. 여기에 독립선언서를 직접 배포하며 주민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문중의 이병헌 선생까지, 이들 6인의 독립운동가가 보여준 연대와 희생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도 보기 드문 ‘공동체적 항일 유산’이다.

조선의 위대한 역사가이자 호남을 세운 사람의 조종(莊宗), 단종의 스승이었던 필문 이선재(李先濟, 1390~1454) 선생의 후손인 일곡파는, 기축옥사의 화를 피해 무안 달리도에 피신했던 박사공 공충(公忠)의 직계 후손이 남 선생이 일곡에 터를 잡은 이래 수백 년간 효제충신(孝悌忠臣)의 가풍을 이어온 유서 깊은 문중이다.

선조들이 전란과 사회의 시련 속에서도 가문의 정기를 지켜냈듯, 광이 일곡의 후손들은 나라가 도탄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자신을 던졌다. 낡은 종택 일산재(逸山齋)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종회관과 추모비 앞에 모인 후손들과 지역 인사들이 올린 현화와 추모사는, 바로 그 기개와 애국심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추모식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회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고, 기록되지 않는 현신은 잊히기 때문이다. 이번 추모식에서 광산이씨 도문종과 일곡문중,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뜻으로 다짐한 후속 과제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열들의 정확한 공적과 가계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사료적 완성도를 높이는 학술 고증 작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곡 독립로’를 지정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대표적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전승하는 노력은 시대적 책무이자 당위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일곡의 선열들처럼 집안 전체가 대가 끊길 각오로 단전 고결한 희생 위에서 있음을 깊이 되새긴다.

선조들이 보여준 혈연의 연대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은 거친 풍랑을 헤쳐 나가야 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정표다. 8·15 광복절을 지나며 광이 일곡 마을 독립운동가 6인의 술회한 넋을 숙연히 기린다. 그들이 남긴 푸른 지조와 애국 정신은 후손들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사들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것은 아니다. 이전 구단은 V리그 참가 이후 좀처럼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매 경기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팀으로 변화하는 것부터가 새로운 출발이다. 김세진 감독을 중심으로 기존 선수들과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가 중요하다.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연고 협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배구계와 교류하면서 ‘전남광주의 팀’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경기장을 찾고 선수들을 응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고 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어렵게 지켜낸 지역 프로배구의 명맥이다. SOOP이 코트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팬들과 새로운 배구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이번 연고 협약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시 이어진 배구의 합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더 크게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승리하며 성장하는 SOOP 수퍼스가 있기를 바란다.

사설

호남, 민주 대표경선서 전략적 선택한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지난 17일 김민석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경선은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된 탓인지 계파갈등이 지나치게 과열됐고 상대후보 흡집내기 등 비방전까지 경선내내 난무했다. 이 러다간 민주당이 진짜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였다.

지난 1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김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명승부를 펼쳤다.

그동안 ‘유력 후보 쏠림현상’이 심했던 민주당 대표 경선치고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실제 김 후보는 지난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 등 4차례 순회경선에서 9만5821표를 획득하며 46.01%를 차지, 9만2735표를 얻어 44.53%에 그친 정 후보를 1.48%p차로 따돌렸다. 표 차이는 불과 3086표 차이였다.

그러다 김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호남에서 과반을 넘긴 지지를 확보했다. 전남광주에서 57.04%, 전북에서 58.39%를 얻으며 상승세를 탄 것이다. 이 때부터 두 후보간 표 차이는 벌어졌고 그 간극은 마지막 수도권 경선까지도 이어져 김 후보가 당 대표를 거머쥐는 원동력이 됐다.

호남이 치열했던 다른 지역 경선과 달리 김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인 것은 정권 안정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부 출범 1년 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자, 호남 지지층이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후보에게 힘을 모아준 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위기감이 표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표심에 담겨 있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에너지 산업,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굵직한 사업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추진할 지도부가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17명을 제외하고 모두 친명 노선을 지향하며 김후보를 지지한 데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을 단행한 정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까지 겹친 것도 한 몫했다.

다시 말해, 호남의 이번 선택은 지역발전과 정치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고독사’ 위험군 조기발견·맞춤형 대책 중요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죽음을 뜻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급증한 ‘나홀로 죽음’에서 유래했다.

이번 고독사 위험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2700여명이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특별시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남지역 1인 가구 3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조사’ 결과 이 중 2708명이 체납, 자살우려, 알코올 질환, 치매 등을 겪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이 1341명 (49.5%)으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 1217명 (45%), 청년층 150명 (5.5%) 순이었다.

저위험군이 2257명 (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중위험군은 418명 (15.4%), 고위험군은 33명 (1.2%)이었다.

이번 조사는 체납과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치매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 중 1개 이상이 확인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이·통장 등 지역 인적안전망이 고독사 위험자 판단기준에 따라 위험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5개 자치구도 사정을 마찬가지다.

지난 2024년 기준 광주 1인 가구 수는 23만221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9%를 차지, 전국 평균 36.1%보다 높은 수치다.

2020년 19만3948가구에서 4년새 32.4%가 증가했는데 이는 곧 고독사 위험군의 확대로 이어져 2023년 94명이었던 고독사 수가 2024년 119명으로 26.6%나 늘었다. 당시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률 역시 8.4명으로 전국 평균 7.7명을 웃돌고 있다.

즉, 1인 가구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고독사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아니 국가가 풀어야할 과제가 된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고독사 위험자의 경우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 만큼 생애 주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

고독사 위험도 높은 1인 가구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노년층은 돌봄 연계·사회참여, 청년층은 마음·일상 회복 중심의 상담, 중장년층은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경제적 자립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대표인	차재진	사 장 정임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자)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 (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